

아이덴티티 형성기 I: 전설

-인간의 하느님 테스트 (창세기 12-21)

-하느님의 인간 테스트 (창세기 22)

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출애굽으로 봄으로,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구약입문을 쓰는 이들도 있다(Anderson). 하지만 여차피 기원전 10세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 성서가 창세기부터 시작함으로,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. 이럴 때 묻는 질문은, 창세기가 역사적 '사실'을 다루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'진실'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. 여기서 말하는 '진실'이란 산술적이며,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, 결단 등의 실존론적인 가치를 의미한다.

신화와 전설의 차이는?

먼저 22장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 이야기(Abraham Cycle)의 끝 부분이다. 12장과 22장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는데, 다음을 보자.

A. 인간의 하느님 테스트하기 (창세기 12-21): 과연 야훼는 아브라함과 사라(이스라엘 백성)의 하느님이 되기에 합당한가?

시험 1

시험 2

B. 하느님의 인간 테스트하기 (창세기 22):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(이스라엘 백성)은 야훼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가?

교훈.

1. 우리 조상 아브라함-정체성(Identity). 선지자들 생각 (겔 33:24; 사 51:2)
2. 나는 아브라함보다 크다. 오잉?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(죽기까지) 따를 지니라. (예수님 생각: 요 8:58)
3. 아브라함(사라는 빼고)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. (바울의 생각: 롬 4:1-3)
4. 야! 아브라함의 믿음 좀 봐라! (헌금) 또 이삭의 순종을 배워라(?). (어느 부흥사의 생각)

답은? 왜? (#2. 본보기)